ISSN 1229-8948

#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 *Quarterly Economic Outlook for Chungbuk*

2006. 10


**경제전망 및 주요지표 요약**

충북 및 국내외 경제전망

주요지표 요약

**충북지역경제**

지역경기 지역산업

지역고용 지역물가 지역금융

지역수출입

**국내경제**

경제성장률 경 기 소 비

투 자 국내물가 고 용

금 융 국제거래

**세계경제**

경제성장률

국제유가 국제금융


충청북도 경제동향분석팀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 연 구 진

조 택 희 (충북개발연구원)
연 훈 수 (충북개발연구원)

김 성 태 (청주대 경제학과)
정 초 시 (청주대 경제학과)
이 현 재 (청주대 경제학과)

# 목차

## 제1편 경제전망 및 주요지표 요약


Ⅰ. 충북 및 국내의 경제전망 / 3

1. 충북경제 전망 / 3
2. 국내경제 전망 / 4
3. 세계경제 전망 / 6

Ⅱ. 주요지표 요약 / 7


## 제2편 주요지표별 경제동향


Ⅰ. 충북지역경제 / 11

1. 지역경기 / 12
2. 지역산업 / 14
3. 지역고용 / 16
4. 지역물가 / 18
5. 지역금융 / 20
6. 지역수출입 / 24

Ⅱ. 국내경제 / 27

1. 경제성장률 / 28
2. 경기 / 30
3. 소비 / 32
4. 투자 / 34
5. 국내물가 / 38
6. 고용 / 40
7. 금융 / 42
8. 국제거래 / 48

Ⅲ. 세계경제 / 53

1. 경제성장률 / 54
2. 국제유가 / 56
3. 국제금융 / 58

# 제1편

# 경제전망 및 주요지표 요약


충북 및 국내외 경제 전망 3

충북경제 전망
국내경제 전망
세계경제 전망

주요지표 요약 7

# Ⅰ. 충북 및 국내외 경제 전망

## 1. 충북경제 전망

- 충북의 실물경기는 2005년 3/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후 상승국면에 진입하였으나, 2006년 2/4분기 이후 하락국면에 지속되고 있어, 향후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체감경기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충북도내 제조업 생산은 북핵 등의 돌발변수에 의해 국내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방향성 전망이 매우 어려우나 경제성장 둔화에 의해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 고용성장은 제조업보다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서비스 산업이 내수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고용사정은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됨.
- 농축산물의 공급감소로 농축산물 가격은 상승이 예상되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4/4분기 중 국내경기가 둔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역의 예금은행대출 및 화폐발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국내경기둔화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어음부도율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 추세는 2006년 3/4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 또한 원자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충북 주요 경제지표 전망>

| | 2005 | 2006 | | | | |
|---|---|---|---|---|---|---|
| | | 1/4 | 2/4 | 3/4 | 4/4 | 연평균 |
| 지역내총생산(GRDP) | 2.9 | 5.8 | 5.3 | 4.9 | 4.4 | 5.1 |
| 실 업 률(UR) | 2.3 | 2.4 | 2.0 | 2.1 | 2.2 | 2.2 |
| 소비자물가지수(CPI) | 3.1 | 2.7 | 2.5 | 2.7 | 2.9 | 2.7 |

주 : 실업률을 제외한 변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음영부분은 추정치임.

## 2. 국내경제 전망

- 국내 연구기관 의하면,'06년 하반기 국내경제는 상반기 성장률(5.7%)보다 낮은 5% 초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소득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wealth)의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소비증가율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고유가의 지속, 금리인상,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 둔화 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단기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 이를수록 공공부문의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경기부진은 완화될 것임.
-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소비 급증으로 국제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유국의 수급조절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물가 상승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노동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전통산업에서의 신규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실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국제유가, 환율 및 자산가격의 변동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통화량의 변동은 없을 것이나 계절적 요인에 의한 증가는 예상됨.
  - 통화당국이 현행의 정책금리를 유지할 전망이고 가계대출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대출의 증가로 단기금리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향후 원/달러 환율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임.
  - 일본이 저금리기조는 유지하되 제로금리정책은 철회함으로써 대일환율의 변동성은 증대되고 엔화환율은 강세기조를 유지
-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환율탄력성이 하락하여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가 제한적이어 4/4분기 중에도 수출입은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됨.
  - 하지만 대일환율의 지나친 강세로 자동차, 섬유 및 IT제품의 대일 수출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기관의 경제지표 전망>

| | | 상반기 | | 하반기 | | 연간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성장률 | 6.1 | 5.3 | 4.6 | 4.0 | 5.0 |
| | 소비 | 4.9 | 4.6 | 3.9 | 3.8 | 4.3 |
| | 투자 | 3.9 | 0.8 | 3.8 | 2.9 | 2.8 |
| | 수출 | 11.5 | 15.9 | 17.3 | 13.9 | 14.7 |
| | 수입 | 12.3 | 13.6 | 16 | 14.1 | 14 |
| | 물가 | 2.3 | 2.4 | 2.5 | 2.8 | 2.5 |
| | 실업률 | 3.9 | 3.4 | 3.4 | 3.5 | 3.6 |
| 한국은행 | 경제성장률 | 5.8 | | 4.4 | | 5.0 |
| | 소비 | 4.6 | | 4.2 | | 4.4 |
| | 투자 | 6.7 | | 5.9 | | 6.3 |
| | 수출 | 13.9 | | 11.1 | | 12.5 |
| | 수입 | 12.6 | | 7.7 | | 10.0 |
| | 실업률 | 3.7 | | 3.3 | | 3.5 |
| | 물가 | 2.4 | | 2.8 | | 2.6 |
| 삼성경제연구소 | 경제성장률 | 6.1 | 5.3 | 4.5 | 3.8 | 4.8 |
| | 소비 | 4.8 | 4.4 | 4 | 3.5 | 4.2 |
| | 투자 | 3.9 | 0.8 | 2.3 | 2.4 | 2.3 |
| | 수출 | 10.6 | 16.9 | 11.2 | 7.7 | 11.5 |
| | 수입 | 19.0 | 19.9 | 15.3 | 10.6 | 16 |
| | 실업률 | 3.9 | 3.4 | 3.4 | 3.5 | 3.5 |
| | 물가 | 2.3 | 2.4 | 2.7 | 3.1 | 2.7 |
| LG경제연구원 | 경제성장률 | 5.6 | | 4.0 | | 4.7 |
| | 소비 | 4.6 | | 3.8 | | 4.2 |
| | 투자 | 7.3 | | 5.7 | | 6.5 |
| | 수출 | 13.9 | | 11 | | 12.4 |
| | 수입 | 19.4 | | 14 | | 16.6 |
| | 실업률 | 3.6 | | 3.5 | | 3.5 |
| | 물가 | 2.3 | | 2.9 | | 2.6 |
| 금융연구원 | 경제성장률 | 6.1 | 5.4 | 4.9 | 4.5 | 5.2 |
| | 소비 | 4.9 | 4.6 | 4.4 | 3.9 | 4.4 |
| | 투자 | 3.9 | 4.3 | 4.0 | 4.0 | 4.0 |
| | 수출 | 11.5 | 10.9 | 8.9 | 7.5 | 9.7 |
| | 수입 | 12.3 | 10.1 | 8.6 | 6.7 | 9.3 |
| | 실업률 | 3.9 | 3.6 | 3.5 | 3.4 | 3.5 |
| | 물가 | 2.3 | 2.5 | 3.2 | 3.5 | 2.9 |

주: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각 연구기관 경제전망보고서

## 3. 세계경제 전망

- 주요 전망기관 및 국제기구들은 2007년 중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0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Global Insight는 3.9%에서 3.2%로 IMF는 5.1%에서 4.9%로 전망
  - 개도국의 경우 성장률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인도, 중앙·동유럽 및 CIS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세계 | 2.7(4.1) | 4.0(5.3) | 3.5(4.8) | 3.9(5.1) | 3.2(4.9) |
| 선진국 | - (1.9) | - (3.2) | - (2.6) | - (3.1) | - (2.7) |
| 미국 | 2.5 | 3.9 | 3.2 | 3.4(3.1) | 2.2(2.7) |
| 일본 | 1.8 | 2.3 | 2.6 | 2.7(2.7) | 2.4(2.1) |
| 유로지역 | 0.8 | 1.7 | 1.4 | 2.5(2.4) | 1.7(2.0) |
| 독일 | -0.2 | 0.8 | 1.1 | 2.3(2.0) | 1.2(1.3) |
| 프랑스 | 1.1 | 2.0 | 1.2 | 2.4(2.4) | 1.6(2.3) |
| 영국 | 2.7 | 3.3 | 1.9 | 2.6(2.7) | 2.5(2.7) |
| 개도국 | - (6.7) | - (7.7) | - (7.4) | - (7.3) | - (7.2) |
| 아시아 | 6.5(8.4) | 7.4(8.8) | 6.9(9.0) | 7.2(8.7) | 6.6(8.6) |
| 중국 | 10.0 | 10.1 | 9.9 | 10.6(10.0) | 9.0(10.0) |
| 대만 | 3.4 | 6.1 | 4.0 | 3.8(4.0) | 3.6(4.2) |
| 인도 | 8.6 | 7.5 | 8.4 | 7.6(8.3) | 7.2(7.3) |
| 중남미 | 1.9 | 5.9 | 4.3 | 4.7(4.8) | 4.3(4.2) |
| 브라질 | 0.5 | 4.9 | 2.3 | 3.1(3.6) | 3.7(4.0) |
| 중동 | 4.4 | 6.4 | 6.4 | 5.3(5.8) | 5.3(5.4) |
| 중앙·동유럽 | 4.6 | 6.6 | 5.5 | 5.3(5.3) | 4.9(5.0) |
| CSI | 7.9 | 8.3 | 7.0 | 7.3(6.8) | 6.2(6.5) |
| 러시아 | 7.3 | 7.2 | 6.4 | 6.4(6.5) | 5.2(6.5) |

주: 괄호안의 수치는 IMF자료임.
자료: KDI경제전망-2006년 3/4분기, 한국개발연구원, 2006. 10.

## Ⅱ. 주요지표 요약

| 지표 | | | 동향 | 전망 |
|---|---|---|---|---|
| 충북지역경제 | 지역경기 | | 경기회복세의 조정 |  |
| | 지역산업 | | 회복국면에 진입 중 증가세가 다소 둔화 |  |
| | 지역고용 | | 커다란 변동이 없는 가운데 횡보 |  |
| | 어음부도율 | | 하락세 유지 |  |
| 국내경제 | 경제성장률 | | 경제성장세 둔화 |  |
| | 경기 | | 완만한 경기둔화 |  |
| | 고용 | | 노동시장은 외형적으로 안정 |  |
| 세계경제 | 경제성장률 | | 견실한 성장세 유지 |  |
| | 국제금융 | 국제금리 | 보합세 유지 | - |
| | | 주요국 주가지수 | 세계 주요국의 주가지수는 보합세 유지 |  |

**주**:  호전,  다소 호전, — 현상유지,  다소 악화,  악화

제2편

# 주요지표별 경제동향


충북지역경제 11

지역경기 / 지역산업 / 지역고용
지역물가 / 지역금융
지역수출입

국내경제 27

경제성장률
경기 / 소비 / 투자
국내물가 / 고용
금융
국제거래

세계경제 53

경제성장률
국제유가
국제금융

# Ⅰ. 충북지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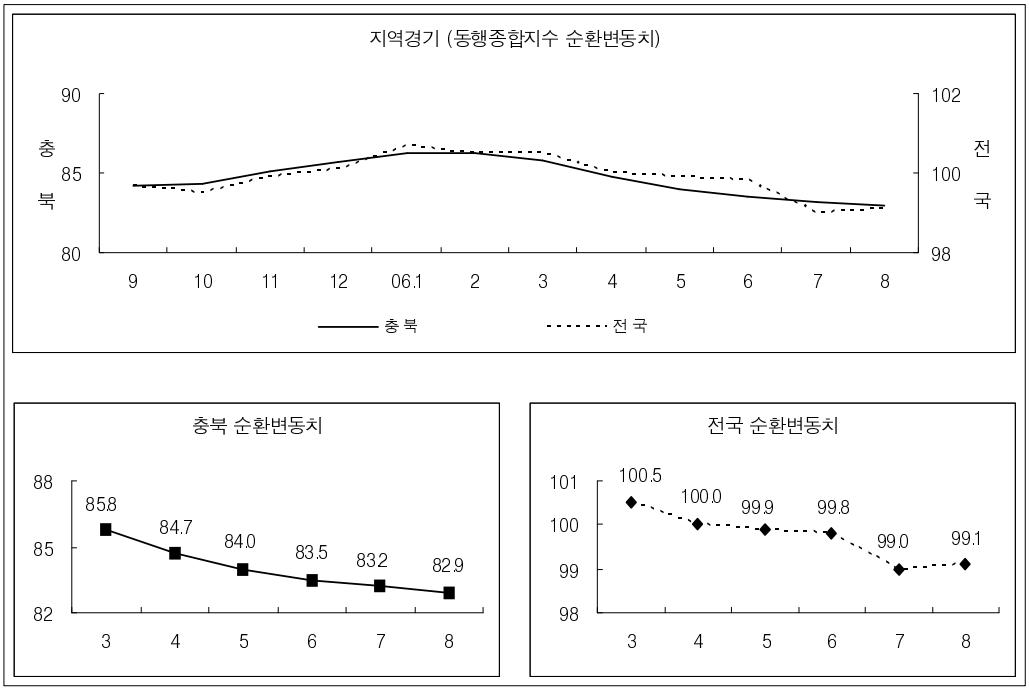
## 요 약

| 지 표 | | 동 향 | 전 망 |
|---|---|---|---|
| 지 역 경 기 | | 경기회복세의 조정 |  |
| 지 역 산 업 | | 회복국면에 진입 중 증가세가 다소 둔화 |  |
| 지 역 고 용 | | 커다란 변동이 없는 가운데 횡보 |  |
| 지 역 물 가 | | 상승세가 둔화되고 보합세 유지 | - |
| 지역금융 | 예금대출 및 화폐발행액 | 예금, 대출 및 화폐발행액 모두 지속적 증가세 유지 |  |
| | 어음부도율 | 하락세 유지 |  |
| 지역수출입 | | 큰폭의 증가세 유지 |  |

주:  호전,  다소 호전, — 현상유지,  다소 악화,  악화

# 1. 지역경기

**지역 경기는 저점을 통과한 듯하나 회복세가 조정 받는 양상**




자료: 통계청 KOSIS, 충청북도·충북개발연구원

## □ 현황

- 충북지역 제조업 업황BSI는'04년 11월 57로'03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그 후 증가세로 반전하여'05년 4월(91)에 정점에 이른 후 5월(74)에 큰 폭으로 감소한 뒤 7월(73)에 저점을 통과한 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10월 89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06년 2월(74)까지 감소하여 저점을 친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9월 현재 도내 제조업 업황 BSI는 77로 도내기업의 체감경기는 전월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 업황BSI 역시'04년 12월 최저치(32)를 기록한 후 빠르게 상승하여'05년 4월(71)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61) 큰 폭으로 감소한 다음 8월(57)에 바닥을 친 후 등락을 거듭하여 지지부진하다'06년 9월에는 73으로 전월(66)보다 상승하였음.
- 한편 충북의 종합적인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충북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년 1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03년 8월 바닥을 친 후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04년 7월 정점 도달 후 감소세가 지속되어'05년 9월(83.7)에 저점을 친 후 상승추세에 진입하여'06년 1월 86.3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8월 현재 82.9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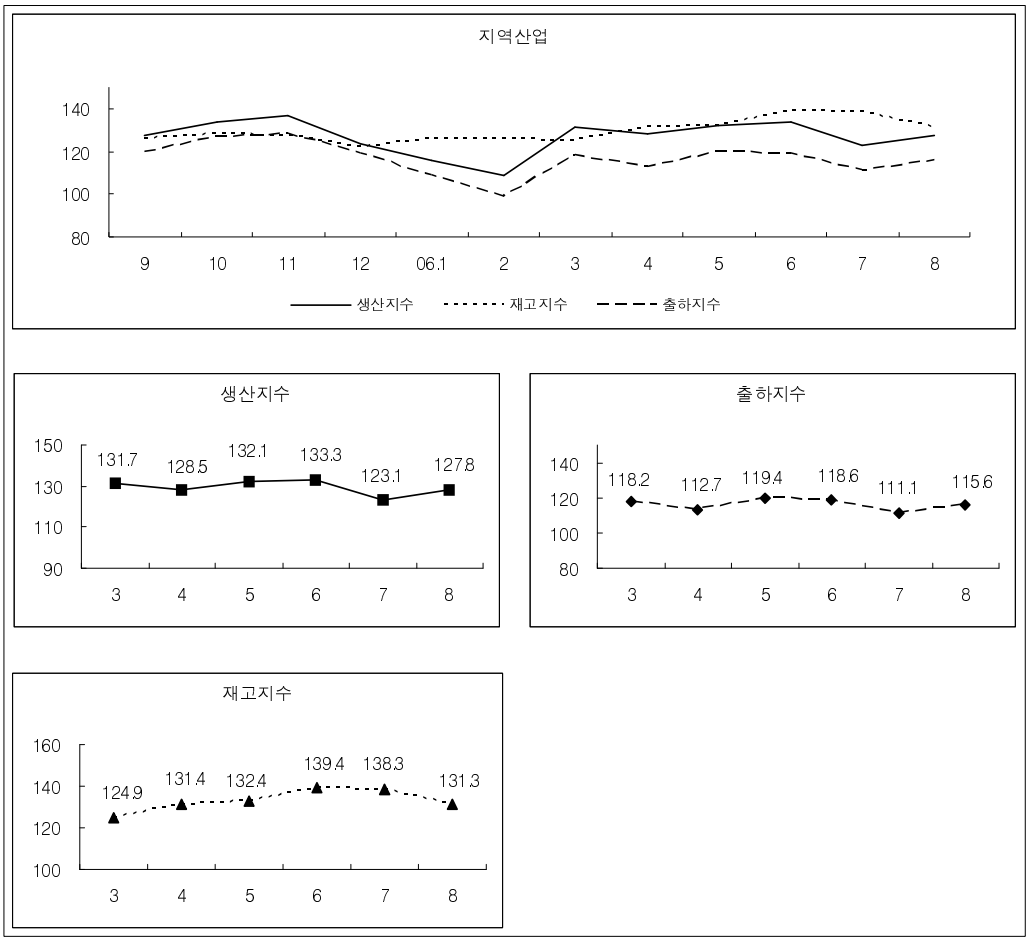
## □ 전망

- 전반적으로 충북의 실물경기 역시 국내경기와 같이 바닥권을 통과한 후 상승국면에 진입한 다음 다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내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보임.

## 2. 지역산업

**지역산업 활동은 저점 통과 후 회복국면에 진입 중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원지수, 2000=100)




자료: 통계청 KOSIS

## □ 현황

•'06년 8월 중 충북의 제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로 반전하였음.

- 경공업의 경우 음식료품이 감소로 돌아서고 섬유, 고무·플라스틱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공업 전체로 10.1%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 중화학공업의 경우 화합물·화학, 기타 전기기계 등이 증가하였으나, 비금속광물, 영상·음향·통신, 기계 등이 감소로 전환되어 중화학공업 전체로 7.4%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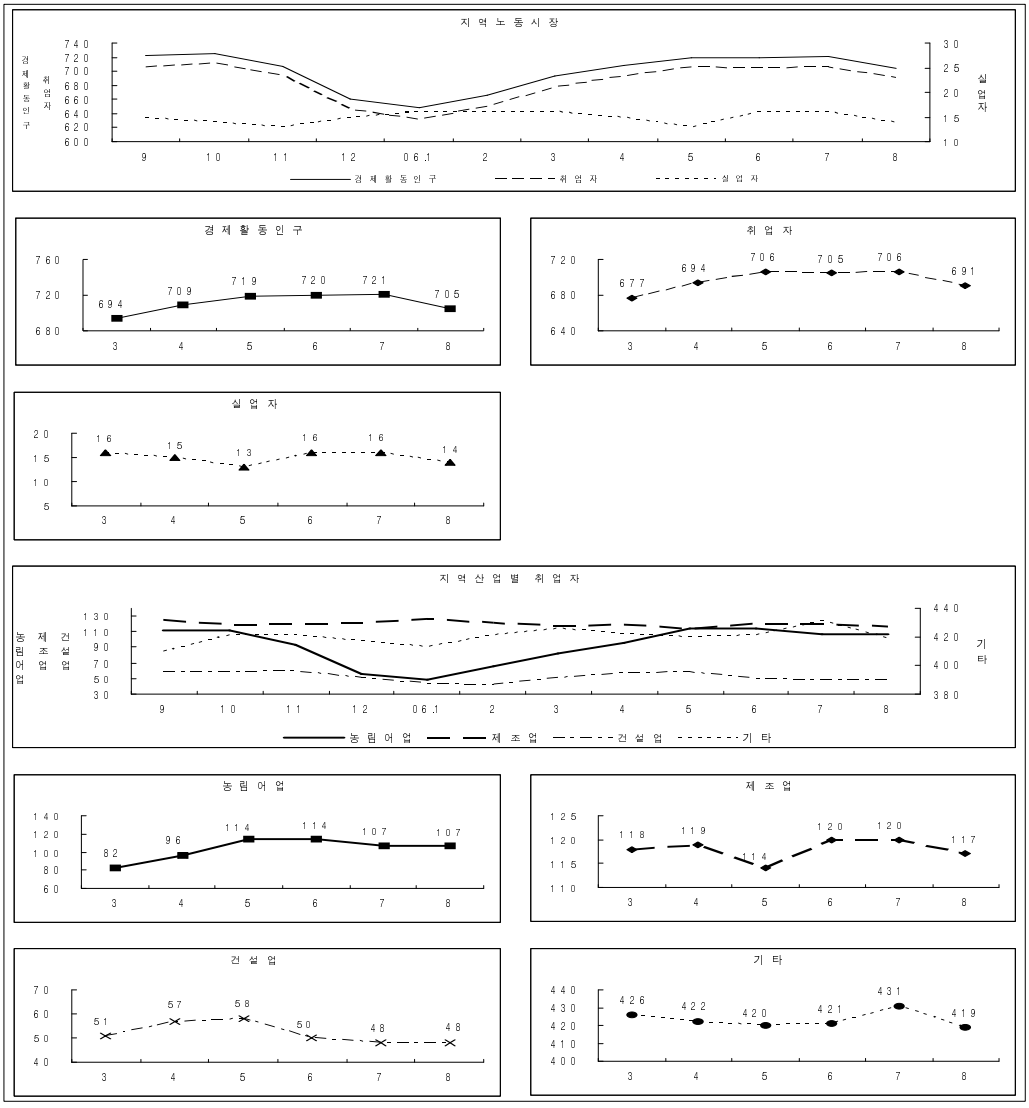
- 현재 국내경기는 상승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세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도내 산업생산 활동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06년 충북도내 제조업 생산은 국내소비와 투자가 증가되고 수출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지난해의 감소세를 마감하는 듯 보였으나, 북한 핵 등의 돌발변수에 의해 향후 국내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방향성의 전망이 어려운 실정임.

# 3. 지역고용

## 지역노동시장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횡보하고 있음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KOSIS

## □ 현황

- '06년 3/4분기 중 지역 실업률은 2.1%로 '05년 3/4분기와 동일하고 전 분기에 비해서는 0.1%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 3.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외형적으로 고용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인구는 3/4분기 중 1,182천명으로 전년 동 분기에 비해 4천명이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2천명이 증가하였으나, 노동시장의 활성화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은 '06년 3/4/분기 중 60.5%로 전년 동 분기에 비해 0.1% 감소하였음.
- 또한 취업자 수는 3/4분기 중 701천명으로 2/4분기에 비해 1천명 감소하였으나 '05년 3/4분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2천명 증가하여 고용사정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동분기비로 3차 산업이 2.0% 증가한 반면, 1차 및 2차 산업은 각각 2.6%, 3.3% 감소하여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 전망

- 올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국내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지역실물경제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영향을 주는 가에 따라 지역고용의 성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비스산업이 내수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고용사정은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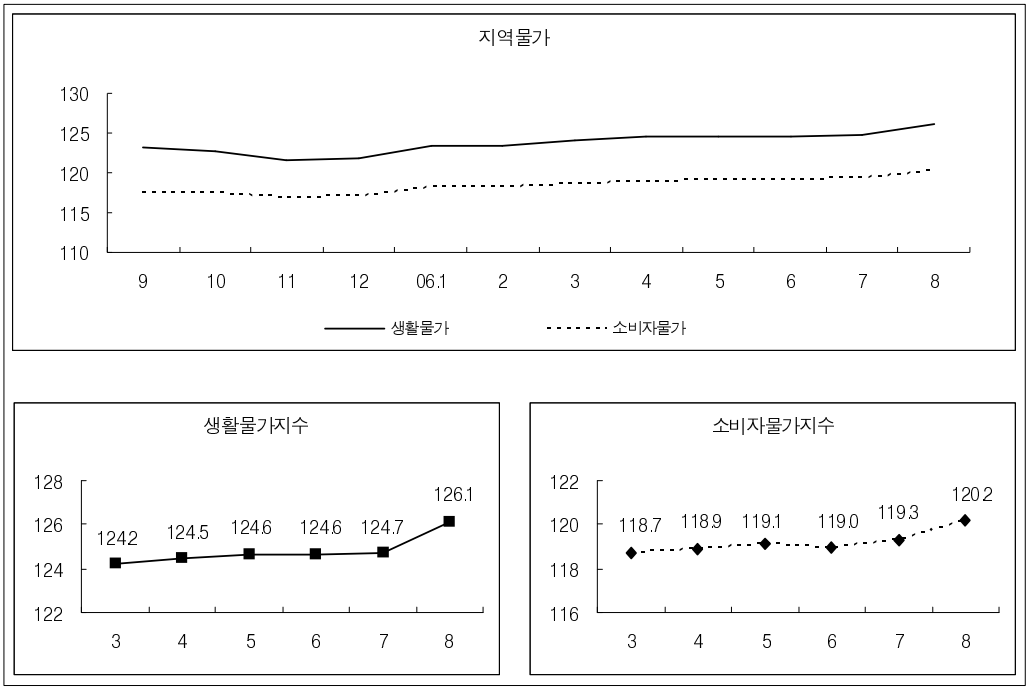
## □ 정책과제

- 지역실업률의 구성에서 청년실업률이 '06년 3/4분기 중 6.6%이며, 이 중 남성 실업률이 9.6%에 이르고 있어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4. 지역물가

## 상승세가 둔화되고 보합세를 유지

(원지수,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 □ 현황

- 8월중 소비자물가지수는 120.2로 전월대비 0.75% 상승하여 전국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은 나타냄. 그러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3.10% 상승하여 다소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8월중에 126.1로 전월의 124.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전국평균치와 비교하여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음.

## □ 전망

- '06년 4/4분기 중에는 농축산물의 공급물량 감소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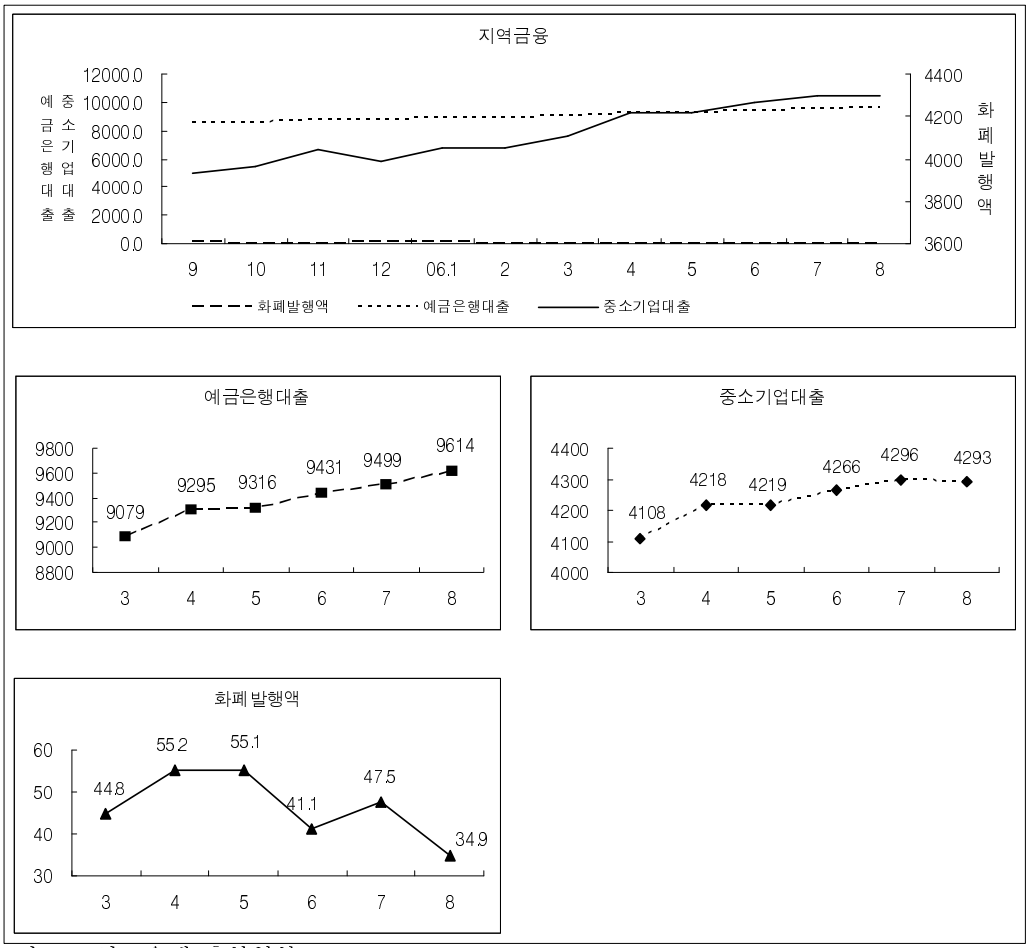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국내경기의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 또한 수요측면의 총수요 증가로 인한 지역물가 상승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5. 지역금융

## 5-1. 예금대출 및 화폐발행액

**예금대출 및 화폐발행액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단위: 십억원)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 □ 현황

- 8월중 예금은행대출은 9,614십억원으로 전월대비 1.21% 증가하여 '06년 3/4분기 내내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이 기간 동안 예금은행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가계대출이었음. 8월중 화폐발행액은 34.9십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

- 한편, 8월중 중소기업대출은 4,293십억원으로 전월의 4,296십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산업대출이 감소한데 기인함.

##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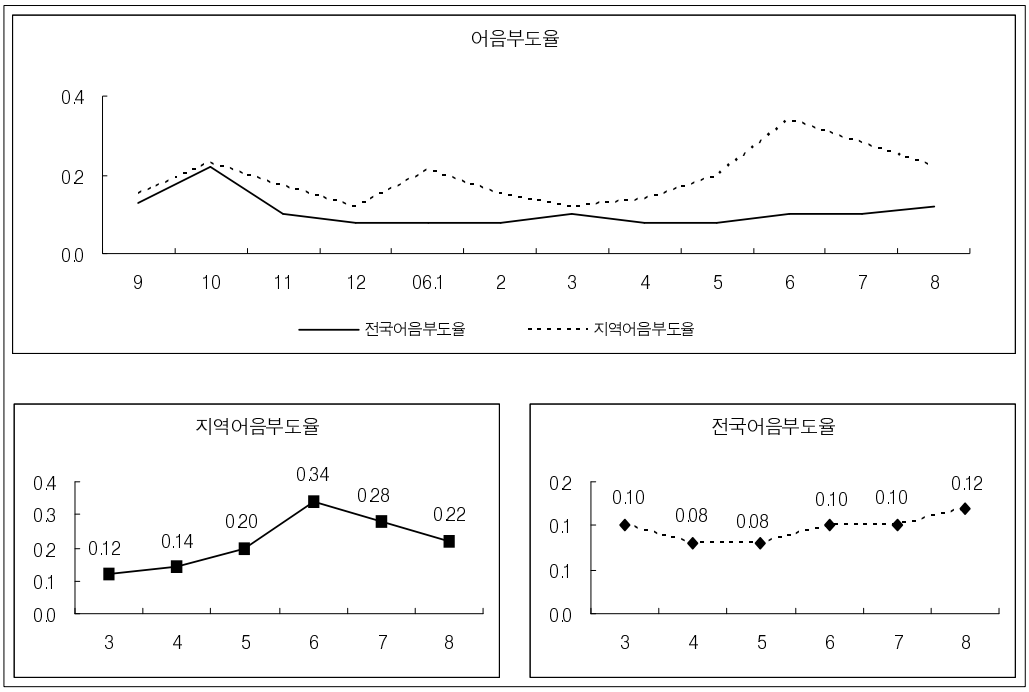
- '06년 4/4분기 중에 국내경기가 둔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역의 예금은행대출 및 화폐발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액 증가도 예상되어, 지역경제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할 것임. 따라서 이와같은 지역금융시장의 추세도 지역의 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5-2 어음부도율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

(단위: %)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http://www.bok.or.kr/

## □ 현황

- 8월중 금액기준 지역어음부도율은 0.22%로 전월대비 0.06%p 하락하였으며, 전국어음부도율은 0.12%로 전월대비 0.02%p 상승하였음.

- 지역별로는 청주와 충주 등 주로 도시지역에서 어음부도율이 하락한 반면, 기타지역에서는 상승하였음.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보합세를 유지하였고 건설업은 감소하였음. 또한, 부도금액과 신규 부도업체수도 모두 감소하였음.

##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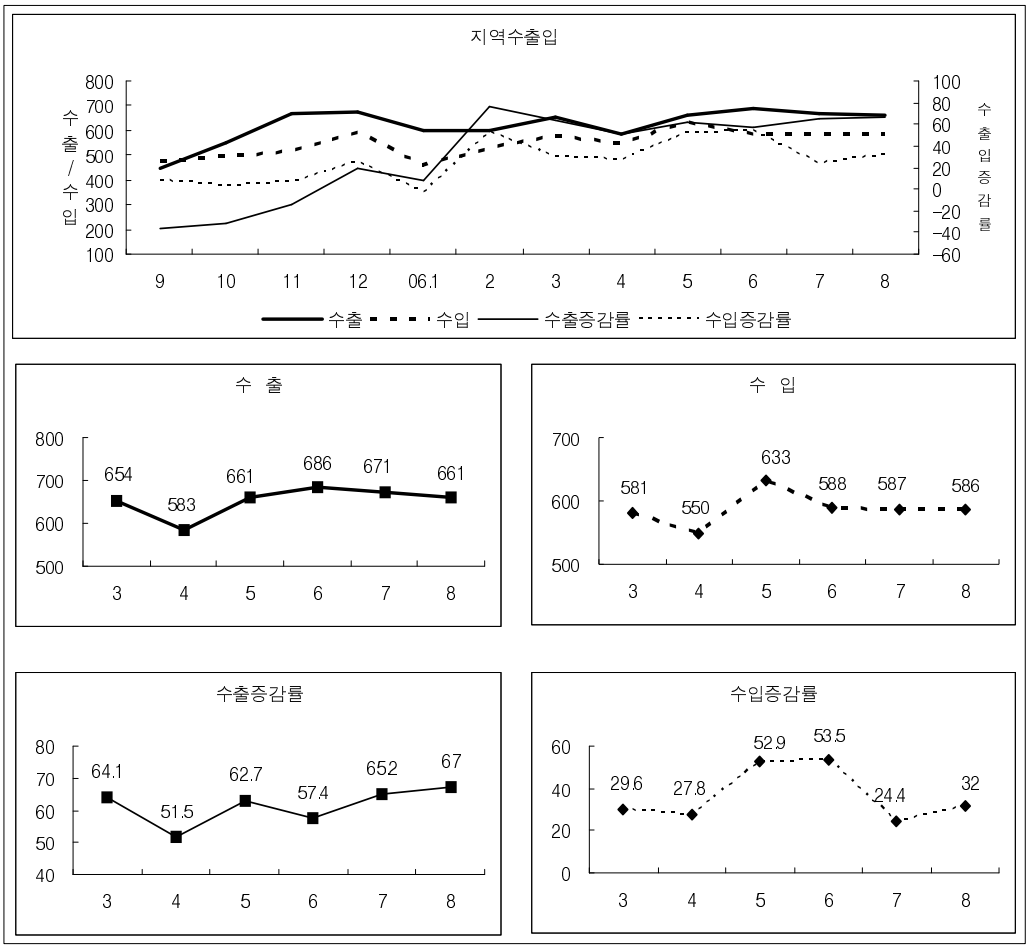
- 국내경기의 둔화세 유지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여 '06년 4/4분기 중에 전국 및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그러나 어음교환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결제수단이 다양화되어 지역어음부도율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6. 지역수출입

##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단위: 백만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현황

- 8월중 지역수출은 661백만불로 전월의 671백만불에 비해 1.51% 감소하였고, 지역수입은 586백만불로 전월의 587백만불에 비해 0.17% 감소하였음. 하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60%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1차 산품과 경공업제품은 감소하였고, 중화학공업제품은 증가하였음. 한편, 수입의 경우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소비재 수입은 감소세를 유지하였음.

## □ 전망

-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해 작지만 강한 경제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들이 가시화 되면 지역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06년 4/4분기 중에 지역수출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수입의 경우에도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임.

- 북핵사태의 장기화 여부,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회복 여부, 그리고 미 달러화의 약세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어느 때 보다도 지역수출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

# Ⅱ. 국내경제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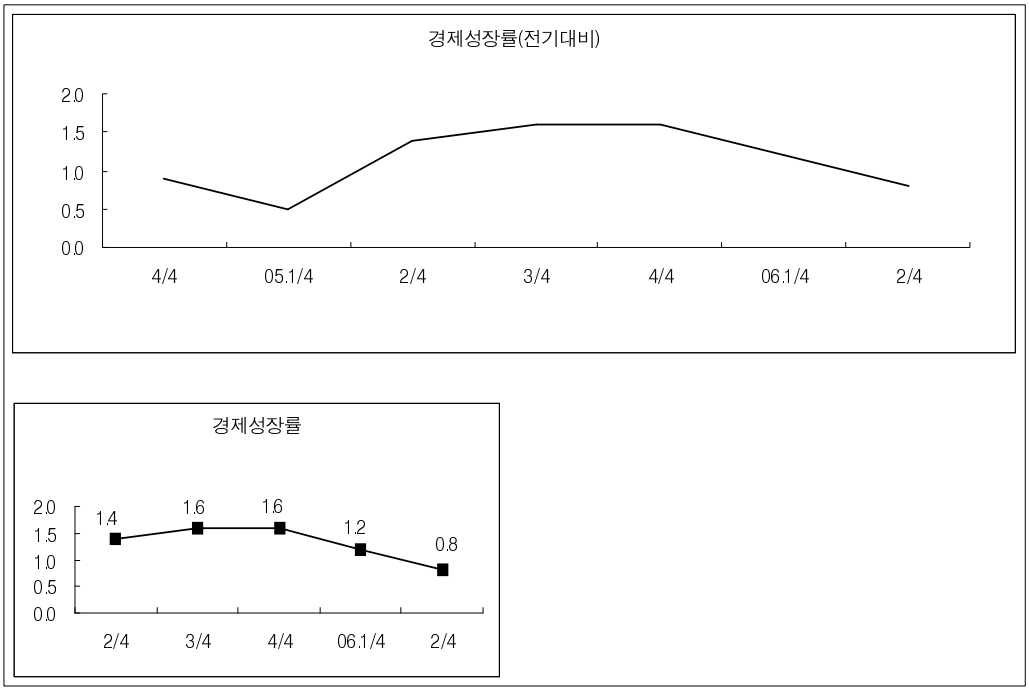
| 지 표 | | 동 향 | 전 망 |
|---|---|---|---|
| 경 제 성 장 률 | | 경제성장세 둔화 |  |
| 경 기 | | 완만한 경기둔화 |  |
| 소 비 | | 소득증가세 둔화에 따라 소비증가세 둔화 |  |
| 투 자 | 설 비 투 자 |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회복세 시현 |  |
| | 건 설 투 자 | 건설투자의 부진국면은 지속 |  |
| 국 내 물 가 | | 해외부문에 의해 상승세 유지 |  |
| 고 용 | | 노동시장은 외형적으로 안정 |  |
| 금 융 | 통 화 |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  |
| | 금 리 |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축소 | – |
| | 주가지수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변동성 심화 |  |
| 국 제 거 래 | 환 율 | 강보합세 유지 | – |
| | 수 출 입 | 주요 교역국의 경기호조에 의해 증가세 유지 |  |

**주**:  호전,  다소 호전, — 현상유지,  다소 악화,  악화

# 1. 경제성장률

**하반기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06년 전체로는 5%달성이 어려울 듯**

(GDP(2000년 기준), 단위: %)




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임.

자료 : http://www.bok.or.kr/

□ 현황

- 소비는 3/4분기에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기대비성장률이'05년 4/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는 양상임. 수출은 원화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내수증가세의 둔화에 따른 경기하락효과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생산부문에서는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의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재고증가율이 확대되는 등 경제의 성장속도가 조정되고 있음을 보임.

□ 전망

•'06년 전체로는 연간 5%의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장률(5.7%)보다 크게 낮은 4% 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단 하반기 국내경가는 유가와 세계경제 성장률 등 대외여건에 의하여 성장속도의 조정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최종수요 항목별 성장률은 소비의 경우 소득증가세가 둔화되어 하반기와 2007년 3%대 성장률을 보이고, 설비투자는 내수회복과 수출호조로 하반기에는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나 2007년에는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수출은 현재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7년에는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어 12%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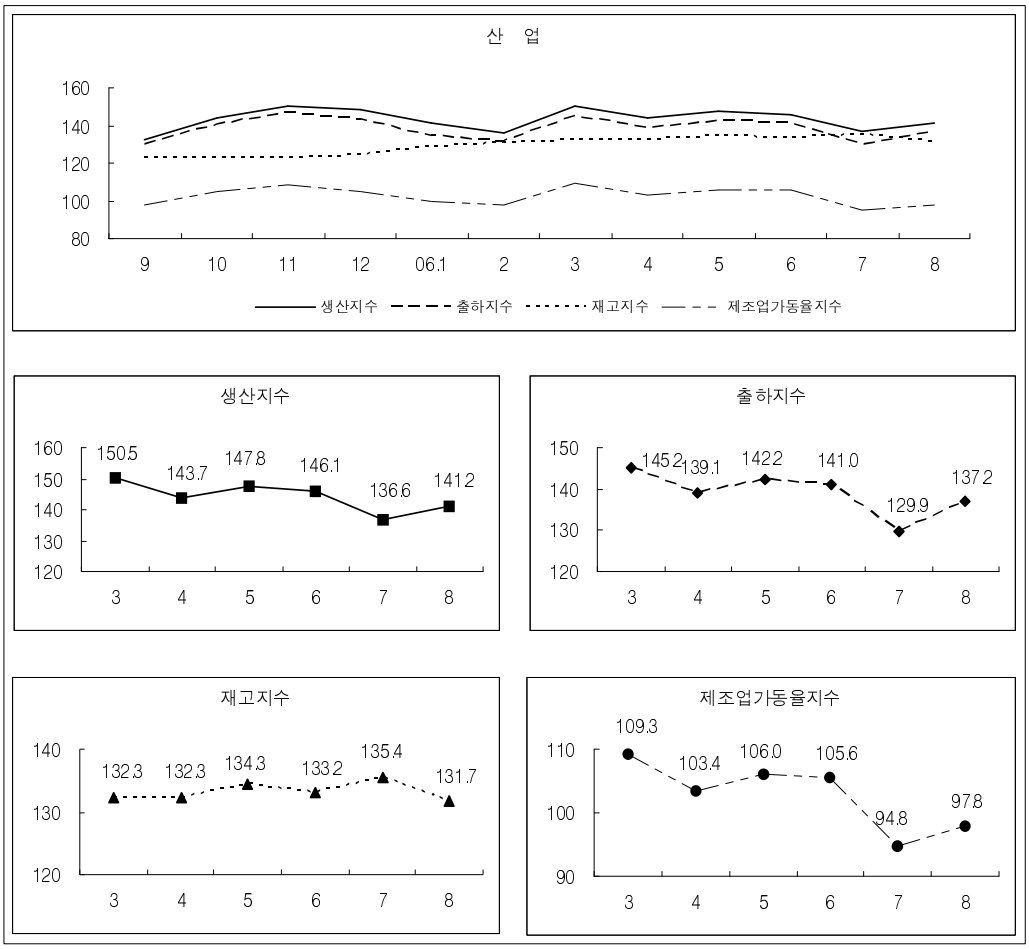
□ 정책과제

•'06년 한국경제는 연초 예상에 미치지는 못하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단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적극적인 시장개입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2. 경기

**경기순환저점 통과 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해 완만한 경기둔화로 보임**

(산업생산동향, 원지수, 2000=100)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06년 8월의 산업생산지수는 146.0(2000년=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10.6% 증가하여 2005년 4/4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산업생산의 증가는 무더운 날씨와 자동차업계 파업종료 등에 기인함. 부문별로는 반도체(D램)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화학제품 선박 등에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

•'06년 8월 중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41.9(2000년=100)로 전년동월대비 8.6% 증가하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8월 중 설비투자는 기타 운수장비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105.9(2000년=100)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하였음. 8월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냉장용 가전제품, 컴퓨터 등의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6%증가하였음.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32.5(2000년=100)로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였음.

•'06년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비 3.9%p 증가한 80.7%를 기록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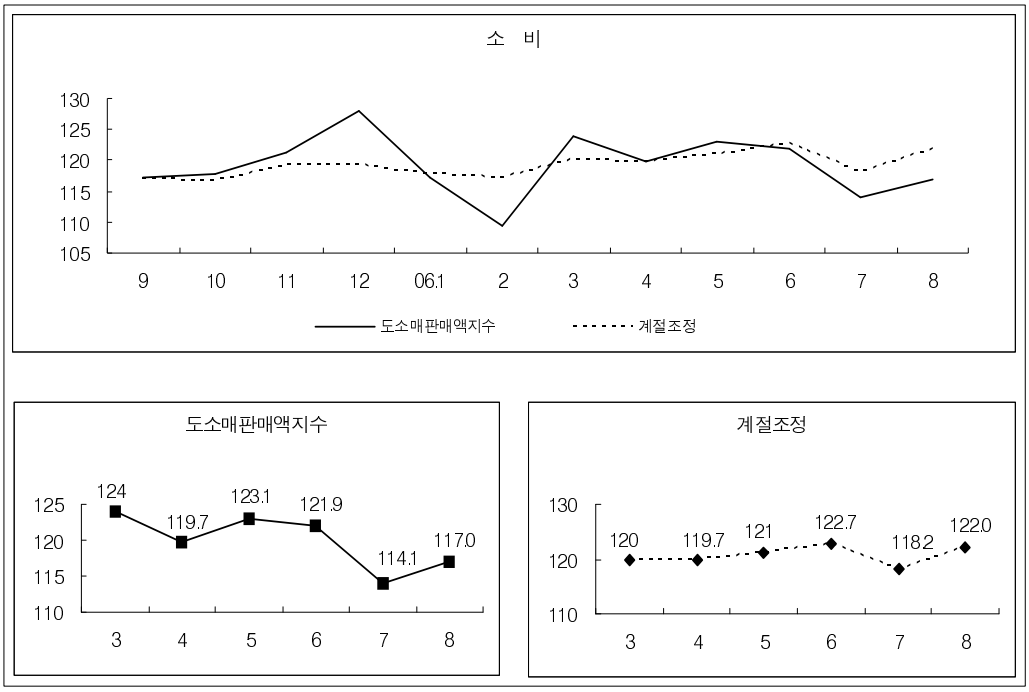
•'06년 8월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생산지수, 서비스업 활동지수, 수입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1p 하락한 99.1을 기록하였음.

•'06년 8월의 선행종합지수 전월비는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차 등이 감소하였으나 자본재수입액 및 건설수주액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3% 상승하였음.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4%p 하락한 3.9%를 보이면서 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상승 국면에 있으나 성장속도는 조정되고 있는 양상임.

## 3. 소비

**소비는 소득증가세의 둔화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하반기 3%대 증가율 전망**

(2000=100)




자료: 통계청 KOSIS

## □ 현황

•'06년 2/4분기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여 5분기 연속 증가세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 '06년 2/4분기 중 소비재 판매는 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여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소비자의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생활형편을 반영하는 소비자평가지수는'04년 12월(62.2) 바닥을 친 후'05년 4월(90.2)까지 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5월(85.5)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어 8월(78.3)까지 감소하다가 9월 이후 상승추세로 반전한 다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06년 3월(90.1)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8월 현재 77.8을 기록한 후 9월에는 78.9를 기록하고 있음.

## □ 전망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 역시 '04년 12월 85.1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후 '05년 3월 103.8로 정점에 도달한 후 4월에 101.3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후 8월(94.8)까지 감소하다가 9월 이후에는 상승세로 반전하여 '06년 1월에는 104.5로 정점에 도달한 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후 5월 이후 100을 하회하여 9월 현재 94.8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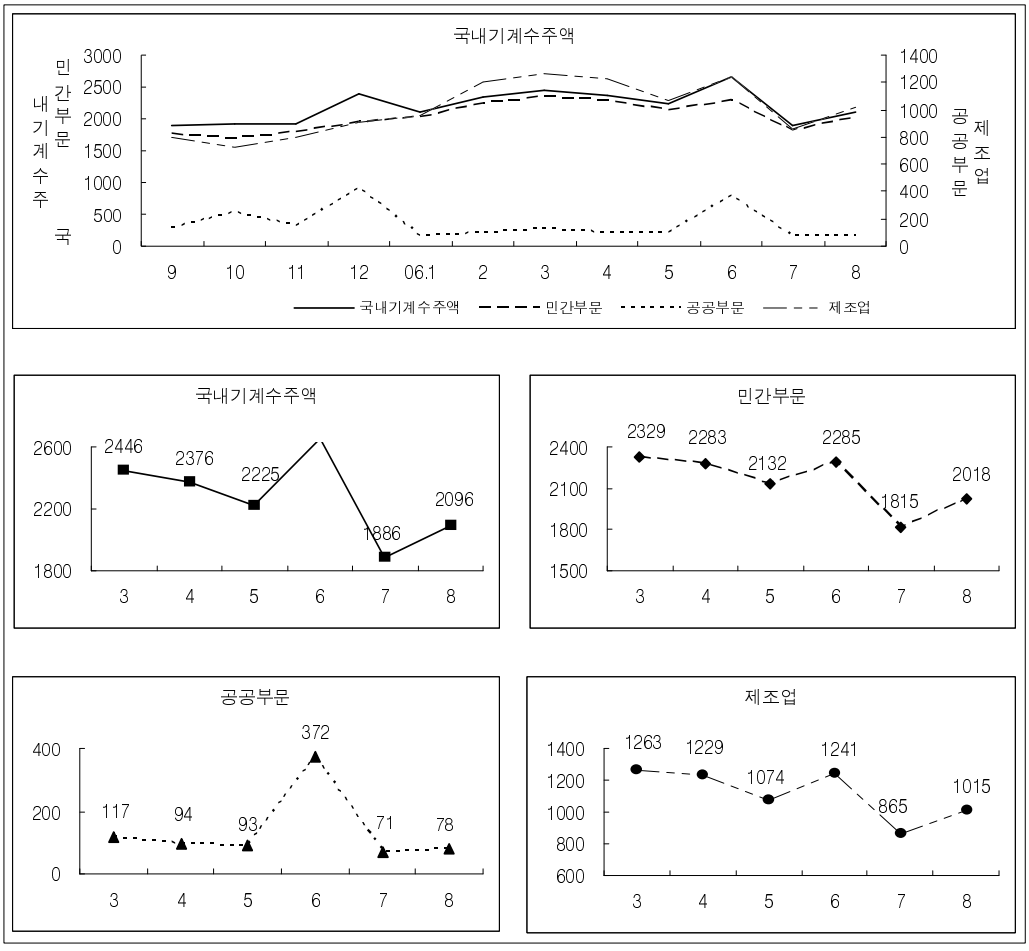
• 최근 소비관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하반기 소비는 상반기보다 다소 위축된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4. 투자

## 4-1. 설비투자

**단기적으로는 설비투자 회복세 뚜렷,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투명 예상**

(국내기계수주액, 단위: 십억원)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 단기적으로 산업생산의 증가, 국내소비 감소세의 둔화 등 국내경기의 본격적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설비투자환경은 다소의 조정과정을 거치겠으나 지표상으로는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전망됨.
- '06년 8월 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비로 11.9%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기저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05년 설비투자의 증가를 주도하였던 특수산업용기계 및 컴퓨터의 투자가 설비투자증가를 견인하였음.
- 이를 반영하여 설비투자의 동행지표로 볼 수 있는 기계류 내수출하는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 '06년 8월 중에도 전년 동월비로 8.0% 상승하였는데, 이는 통신기기, 기계장비 및 전기기계 등의 출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국내 기계수주도 8월 중 6.5%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공공부문이 64.8%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이 1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임.

□ 전망

- 단기적으로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고유가의 지속, 금리인상, 원화가치의 절상압력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06년 하반기 이후의 투자환경은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의 설비투자 증가율 7.2%를 다소 밑도는 5%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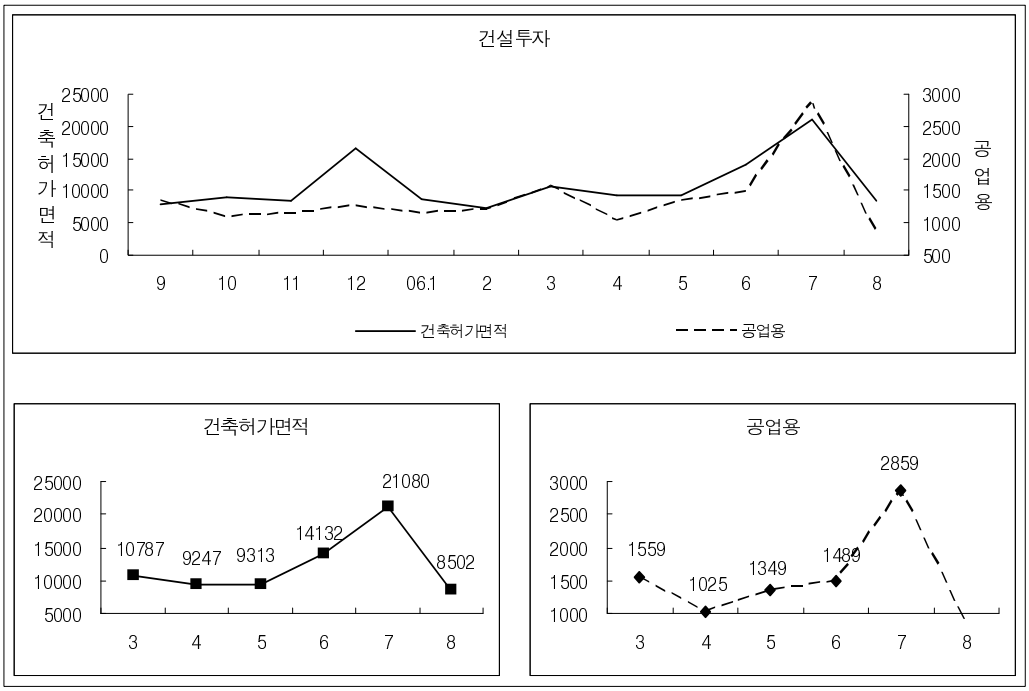
□ 정책과제

- 기업의 투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물투자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보다는 각종 규제 개혁과 더불어 정부정책의 신뢰성 증대 등이 필요할 것임.

## 4-2. 건설투자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는 공공투자의 크기에 크게 의존할 듯**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자료: 통계청 KOSIS

□ 현황

- 건설경기의 동행지표로 볼 수 있는 건설기성액은'04년 1/4분기 이후 지속된 증가세가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06년 8월 중 전년 동월비로 2.8%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건설경기를 주도해왔던 민간부문은 1.9%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공공부문은 14.9%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임.
- 또한 건설투자 단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06년 8월 중 14.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분이 18.78% 감소하였지만 민간부문에서 13.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장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06년 8월 중 8,502$m^2$로 2005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요소를 보이고 있음.

□ 전망

- 건설투자는'06년 건설경기의 단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각종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건설경기의 본격적 회복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하반기에 이를수록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건설경기의 회복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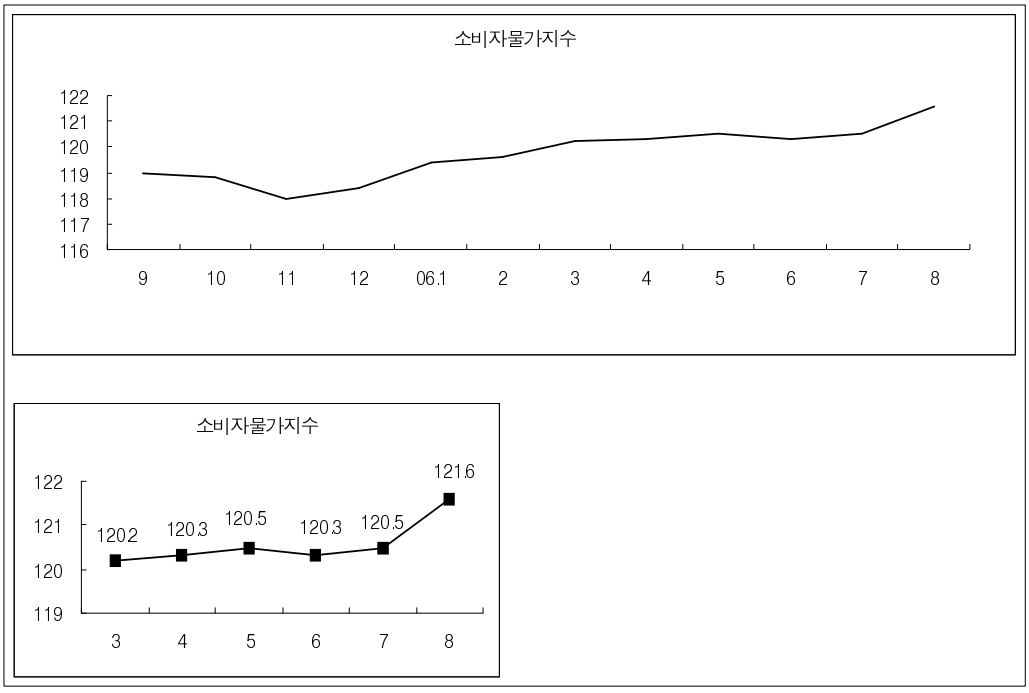
□ 정책과제

- 국내 건설경기가 공공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분 발주를 경기변동에 적합하게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건설경기 진작정책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지역 단위에서의 건설경기 회복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5. 국내물가

##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원지수, 2000=100)




자료: http://www.nso.go.kr/

## □ 현황

- 8월중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21.6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91% 상승하였음. '06년 3/4분기 중의 물가상승은 내수부문보다 주로 해외부문에 기인하였음. 즉,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원화가치가 높아졌어도 해외요인이 물가상승을 주도하였음.

- 즉, 원화의 절상으로 수입물가 상승분이 많이 상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수입물가가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물가도 상승하였음.

##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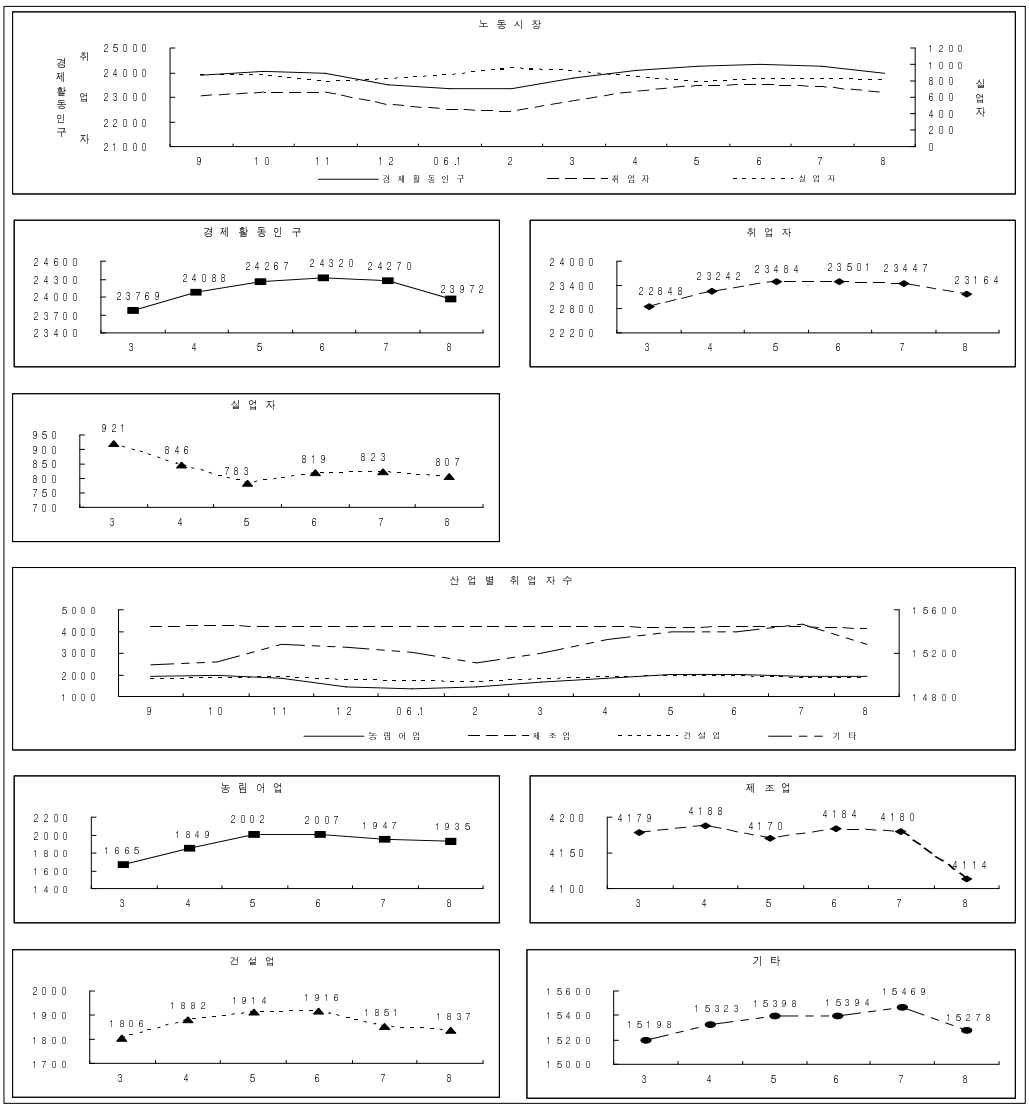
- 중동지역의 정세불안과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국제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유국들의 국제원유 수급조절로 '06년 4/4분기 중에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임. 따라서 국내물가의 상승세도 다소 둔화될 전망임.

- 국내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내수 또는 총수요 증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전망임.

# 6. 고용

## 하반기 이후 고용사정의 획기적인 개선은 어려울 듯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단위: 천명)




자료 : 통계청 KOSIS

### □ 현황

- ‘06년 3/4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대비 0.3%p 하락한 3.3%를 기록하여 미세하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외형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38,834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8천명이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는 219천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06년 3/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62.1%로 노동시장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06년 3/4분기 중 취업자는 전년 동 분기에 비해 1.2% 증가한 23,314천명을 기록하였으나,‘06년 2/4분기에 비해서는 95천명이 감소하여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음.
- 산업별 취업자분포를 보면, ‘06년 3/4분기 중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각각 1.4%, 1.4%감소하였으며, 3차 산업은 2.2% 증가하여 3차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전환되고 있음.

### □ 전망

- 고용구조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3차 산업이 주로 내수기반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고용사정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노동시장이 점차로 지식기반 산업의 노동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전통산업에서의 신규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 불일치로 인한 구조적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의 실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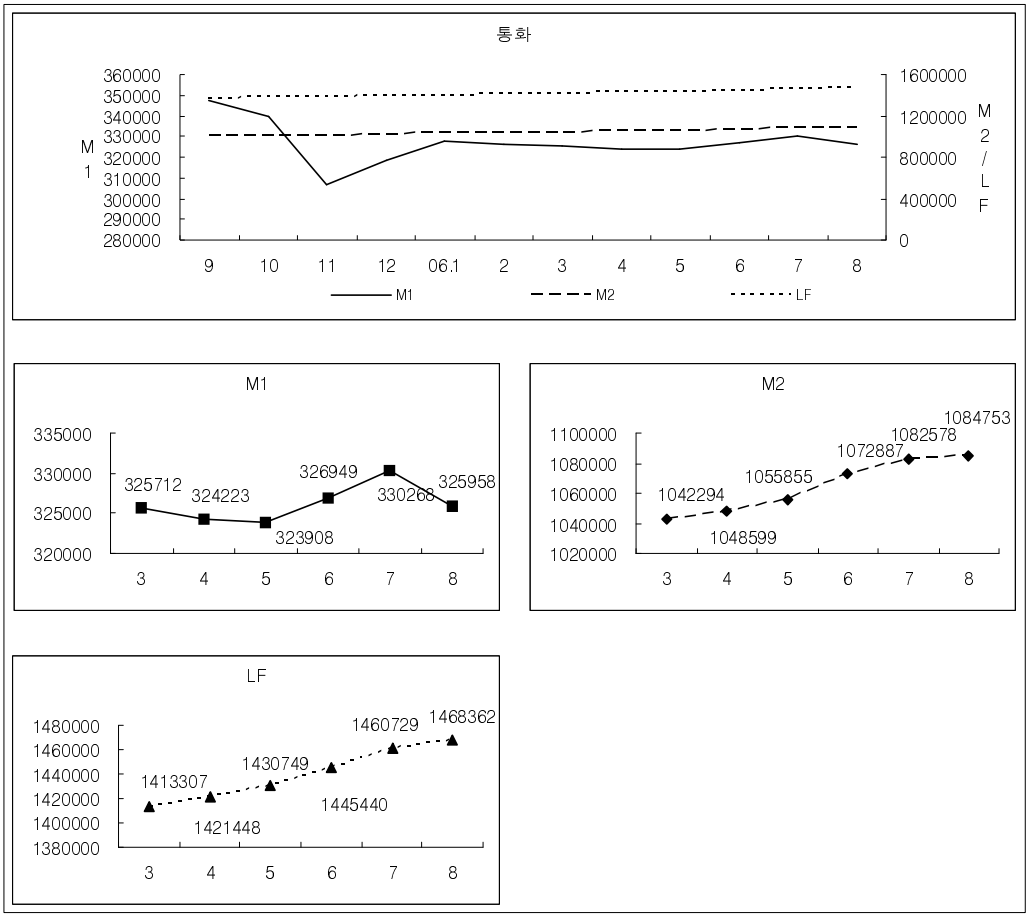
- 고용정책은 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200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35.5%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6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7. 금융

## 7-1. 통화

### 모든 통화량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단위: 십억원)




주 : 1) 신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2) LF는 예금취급기관의 통화성상품을 통화지표로 정의하는 IMF의 새로운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의 기준에 따라 그 명칭을 통화의 의미가 내포된 M3에서 LF(금융기관유동성: 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ial Institutions)로 개칭

자료 : http://www.bok.or.kr

## □ 현황

- 8월중 M1통화량은 325,958십억원, M2통화량은 1,084,753십억원, 그리고 LF통화량은 1,468,362십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M1통화량은 하락세를 유지하였고, M2와 LF통화량은 보합세를 나타냈음.

•'06년 3/4분기 중에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유가, 환율, 그리고 자산가격과 같은 물가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임.

##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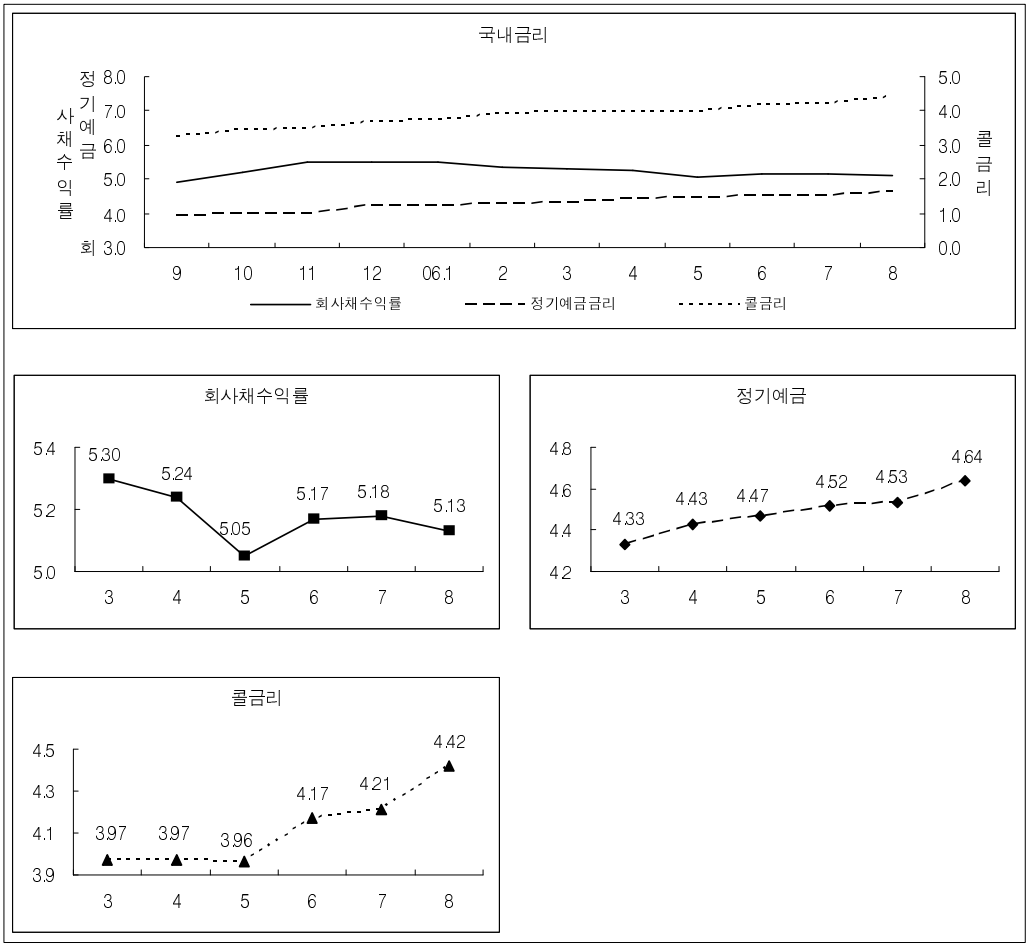
•'06년 4/4분기 중에도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고 국제유가, 환율, 그리고 자산가격의 변동이 안정적일 것임. 따라서 급격한 통화량의 변동은 없을 것이지만 계절적 요인에 의한 증가는 예상됨.

-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06년 4/4분기 중에도 통화정책 당국이 정책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할 것이고, 거시경제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은 다소 증가하는데 그칠 것임.

## 7-2. 금리

**단기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할 전망**

(단위: %)




자료 : http://www.bok.or.kr/

□ 현황

• 8월중 장기금리인 회사채수익률은 5.13%로 전월대비 0.05%p 하락하였고, 단기금리인 콜금리는 4.42%로 전월대비 0.21%p 상승하였으며, 정기예금금리는 4.64%로 전월대비 0.11%p 상승하였음.

•'06년 3/4분기 중에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의 자금유출로 정기예금금리가 상승하였음. 단기시장금리인 콜금리는 금융정책당국의 금융시장 개입으로 인해 상승세로 반전되어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됨.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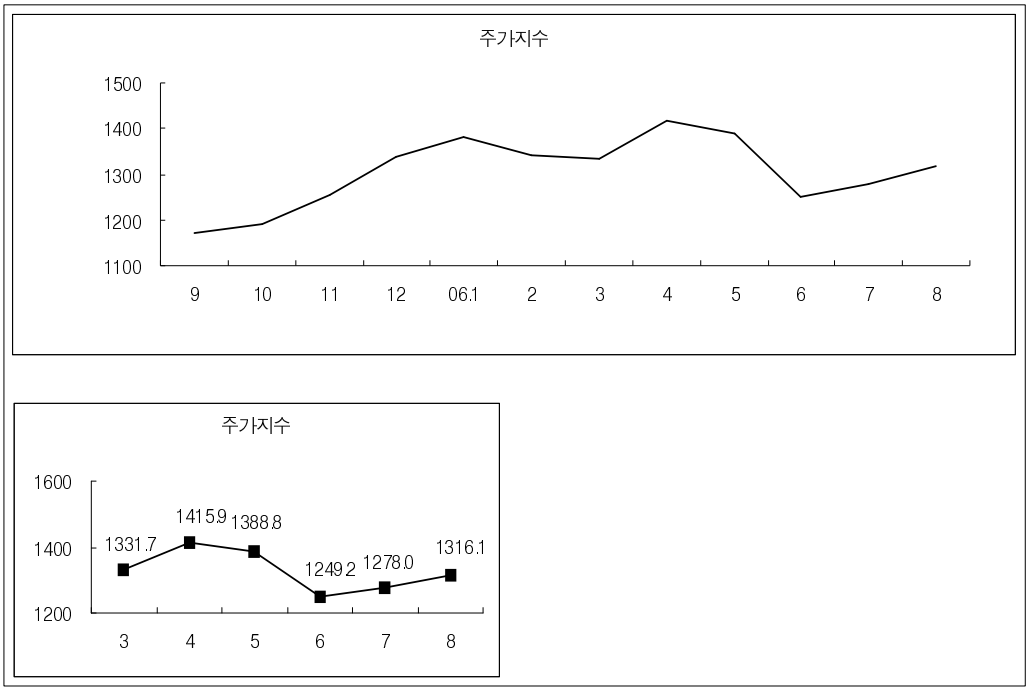
•'06년 4/4분기 중에도 통화당국이 현행의 정책금리를 유지할 전망이고, 가계대출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대출의 증가로 단기금리가 다소 상승할 전망임. 그러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임.

• 북핵사태와 같은 외부요인, 그리고 환율이나 물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통화당국이 금리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

## 7-3. 주가지수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1980.1.4=100)




자료: http://www.bok.or.kr/

## □ 현황

- 8월중 KOSPI지수는 1316.1로 전월대비 2.98% 상승하였음. 국내경기 둔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해외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06년 3/4분기 중에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반영하여 주가의 변동성이 심화되었음. 원화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이런 추세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주가를 근본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였음.

## □ 전망

- '06년 4/4분기 중 주가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임. 미국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따른 동조화와, 미국의 금리인하 중단에 따른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전환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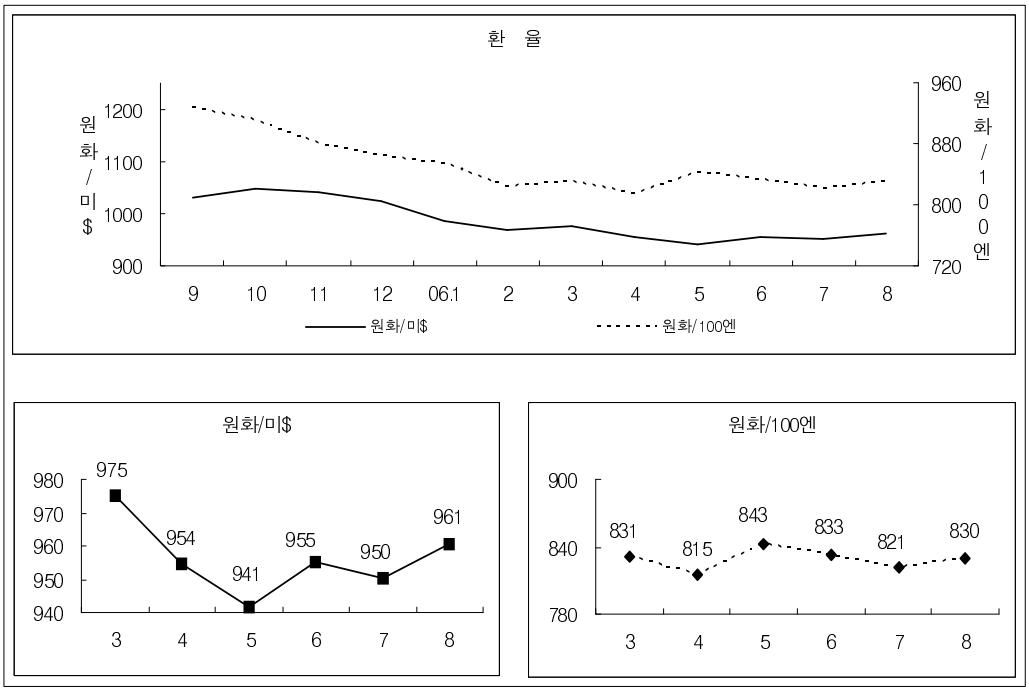
- 북핵사태의 충격으로 주가는 급락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증대가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 증가, 및 건설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실물부문이 근본적으로 주가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적립식 투자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의 확대나 해외금융시장의 활성화 등도 주가지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전망임.

# 8. 국제거래

## 8-1. 환율

### 등락을 거듭하며 강보합세를 유지

(단위: 원)




자료: http://www.bok.or.kr/

## □ 현황

- 8월중 대미환율은 961원으로 전월대비 1.16% 상승하였고, 대일환율은 830원으로 전월대비 1.10% 상승하여 '06년 3/4 분기 중에 원화환율은 약세기조를 유지하였음.

- 원화의 약세기조 유지는 국내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음. 즉, 미국 연방지준의 금리인상 조기종결 시사나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적인 자금운용 등과 같은 국내외 요인에 기인하였음.

##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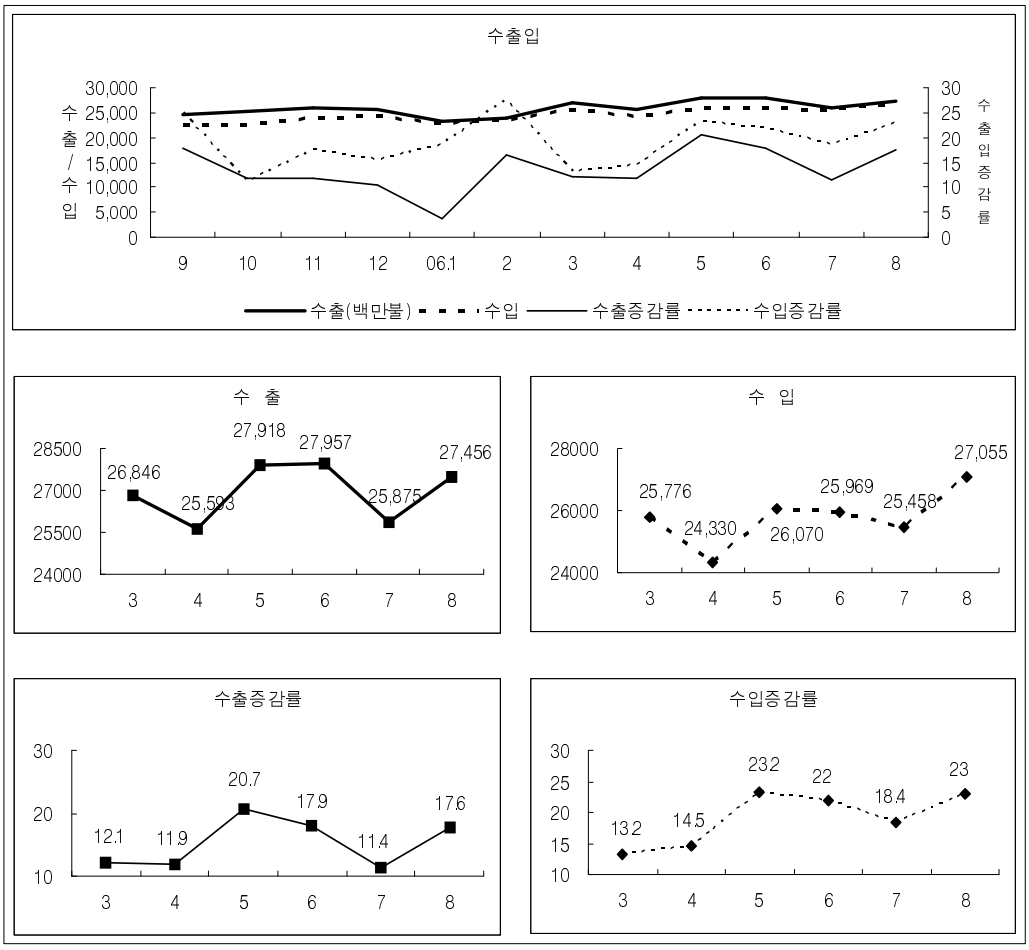
- 북핵사태와 같은 강한 외부적 충격이 있었을 때 환율이 크게 상승한 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확보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06년 4/4분기 중에도 원화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강보합세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 일본은행이 저금리기조는 유지하되 제로금리정책은 철회함으로써 대일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엔화 환율은 강세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 8-2. 수출입

### 수출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단위: 백만불, %, FOB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 현황

- 8월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27,456백만불과 27,055백만불로 전월대비 6.11%와 6.27%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증감률로는 수출이 6.2%p, 수입이 4.6%p로 각각 증가하였음.

-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조건하에서도 수출입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ASEAN, 및 유럽 국가들의 경기호조에 따른 것임.

## □ 전망

-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환율탄력성이 하락하여 원화환율의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효과가 제한적이어서 '06년 4/4 분기 중에도 수출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됨.

- 국내경기의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 폭은 감소가 예상되며, 대일환율의 지나친 강세로 자동차, 섬유, 및 IT제품의 대일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도 수출입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Ⅲ. 세계경제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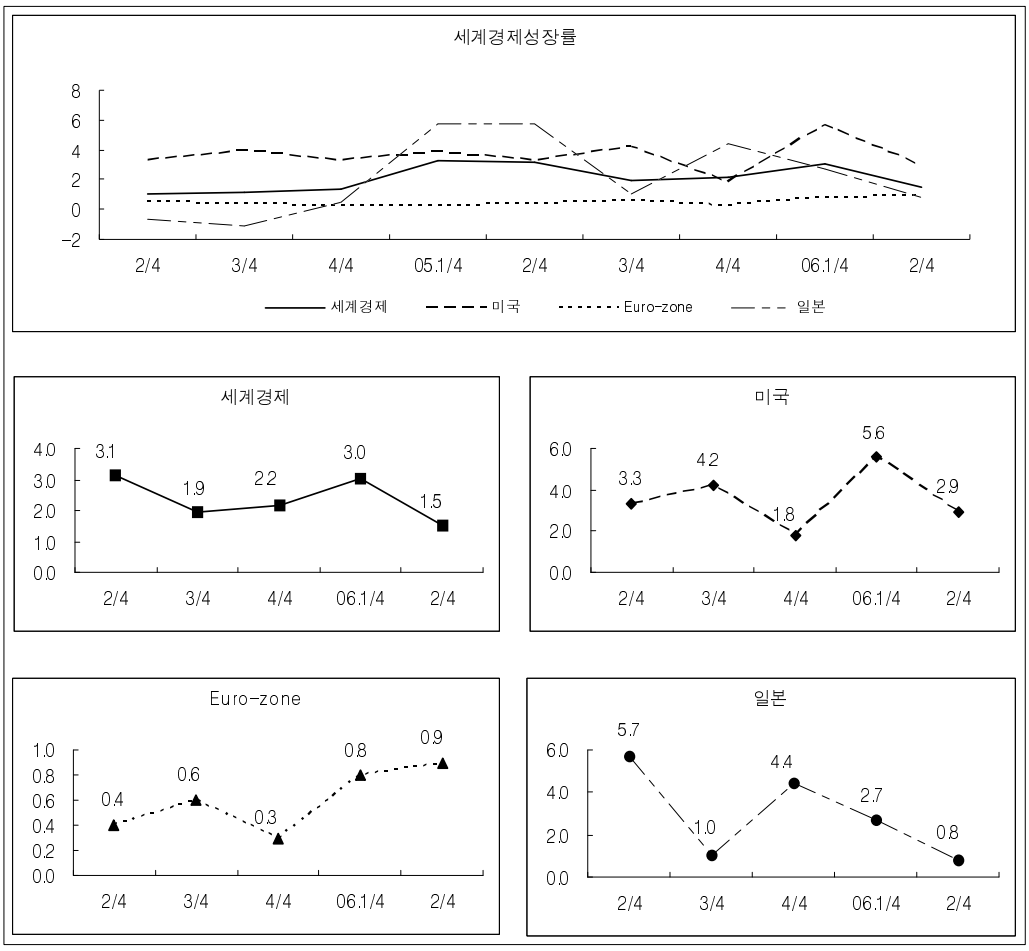
| 지 표 | | 동 향 | 전 망 |
|---|---|---|---|
| 경 제 성 장 률 | | 견실한 성장세 유지 |  |
| 국 제 유 가 | | 최고가 경신후 하락세 유지 |  |
| 국 제 금 융 | 국 제 금 리 | 보합세 유지 | - |
| | 주 요 국 주 가 지 수 | 세계 주요국의 주가지수는 보합세 유지 |  |

**주**:  호전,  다소 호전, — 현상유지,  다소 악화,  악화

# 1. 세계 경제성장률

**2006년 세계경제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불변 GDP기준, 계절조정, 전기비, 단위: %)




자료 : http://www.cao.go.jp/
http://europe.eu.int/en/comm/eurostat/
http://www.bea.doc.gov/bea/

## □ 지역별 현황과 전망

- 미국경제는 금리인상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감소하고 있어 '06년 2/4분기 GDP는 전기 대비 0.8%(연 2.8%) 증가하였음. '06년 경제성장률은 '05년 경제성장률(3.5%)을 약간 하회하는 3.1~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증가 폭이 확대되어 '06년 2/4분기 유로지역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8%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그 결과 '05년 1.4% 성장하였던 유로경제는 '06년에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경제는 소비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엔화 약세로 수출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여 '06년 2/4분기 GDP는 전기대비 0.2% 증가하여 1/4분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주요 기관들은 '05년 2.8% 성장하였던 일본경제가 '06년에는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06년 2/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11.3%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중국은'05년 9.9%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06년에는 약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나 그래도 9.0~10.0%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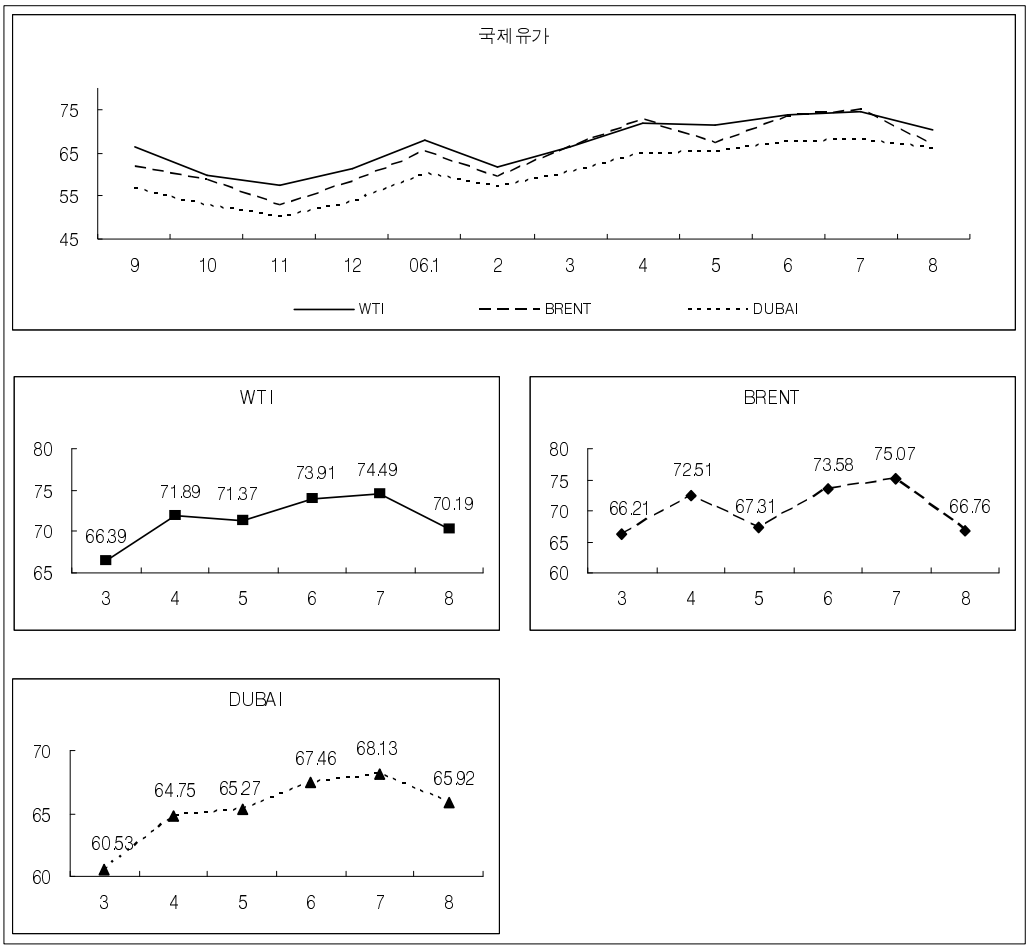
## □ 전망

- '05년 견실한 성장세와 회복세를 보여 3.6% 성장한 세계경제는'06년에도 미국과 일본 및 유로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중국경제도 고성장을 유지하여 4%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 국제유가

**현재의 고유가의 상황을 주어진 여건으로 보고 대비해야**

(단위: $/Bbl)




자료: http://www.mofe.go.kr/

### □ 현황

- 우리나라 최대의 수입원유인 두바이유는 2006년 8월 8일 72.6$/bbl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10월 23일 현재 55.17$/bbl을 기록하고 있음.
- 두바이유는 2005년 연평균 49.4$/bbl이었으나 '06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63$/bbl을 나타내 29%가 상승하였음.
- 현재의 고유가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수요측면으로는 올해 예상보다 높은 세계경제성장률로 인한 원유수요 증대 및 투기자금의 유입 등을 들 수 있음.
- 공급측 요인으로는 이란 핵개발과 이라크 정세를 둘러싼 중동 분쟁의 발발가능성, 나이지리아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한 석유생산차질, OPEC의 증산능력의 저하 등을 꼽을 수 있음.

### □ 전망

- 현재의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중국과 인도 등의 원유수요 급증, OPEC의 신규투자 부진, 세계경제가 경기조절을 통한 유가흡수능력 저하,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하반기 이후의 국제유가는 55$/bbl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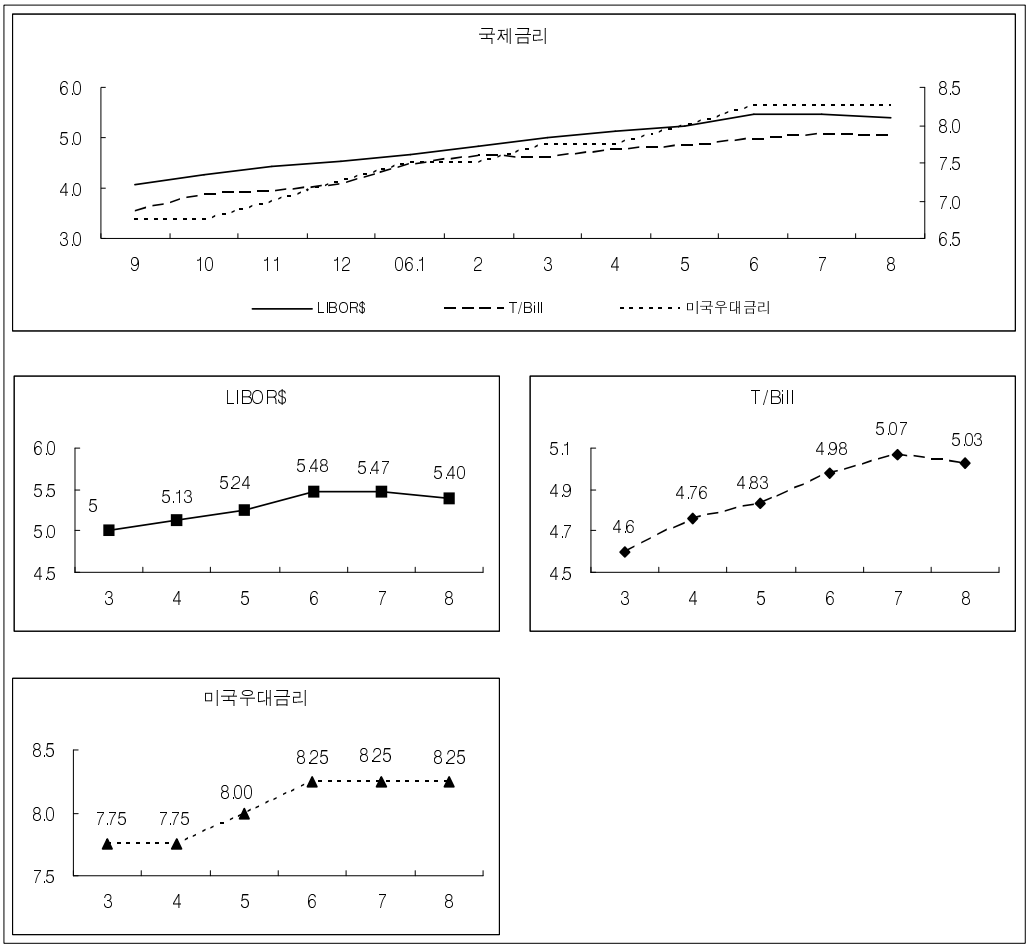
-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제유가의 10$ 인상은 국내경제성장을 0.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유가가 주어진 여건이라면 경제구조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의 본격적 개발과 함께 모든 산업을 에너지 절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3. 국제금융

## 3-1 국제금리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보합세 유지

(LIBOR$(3개월물), T/Bill, 단위: %)




자료 : http://www.mofe.go.kr/

## □ 현황

- 국제표준금리인 LIBOR$는 8월중에 5.40%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07%p 하락하였고, 미국우대금리는 8.25%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T/Bill은 5.03%로 전월대비 0.04%p 하락하였음.

- 세계 주요국가의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현안을 금리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으로 인해 장단기 국제금리 모두가 전반적으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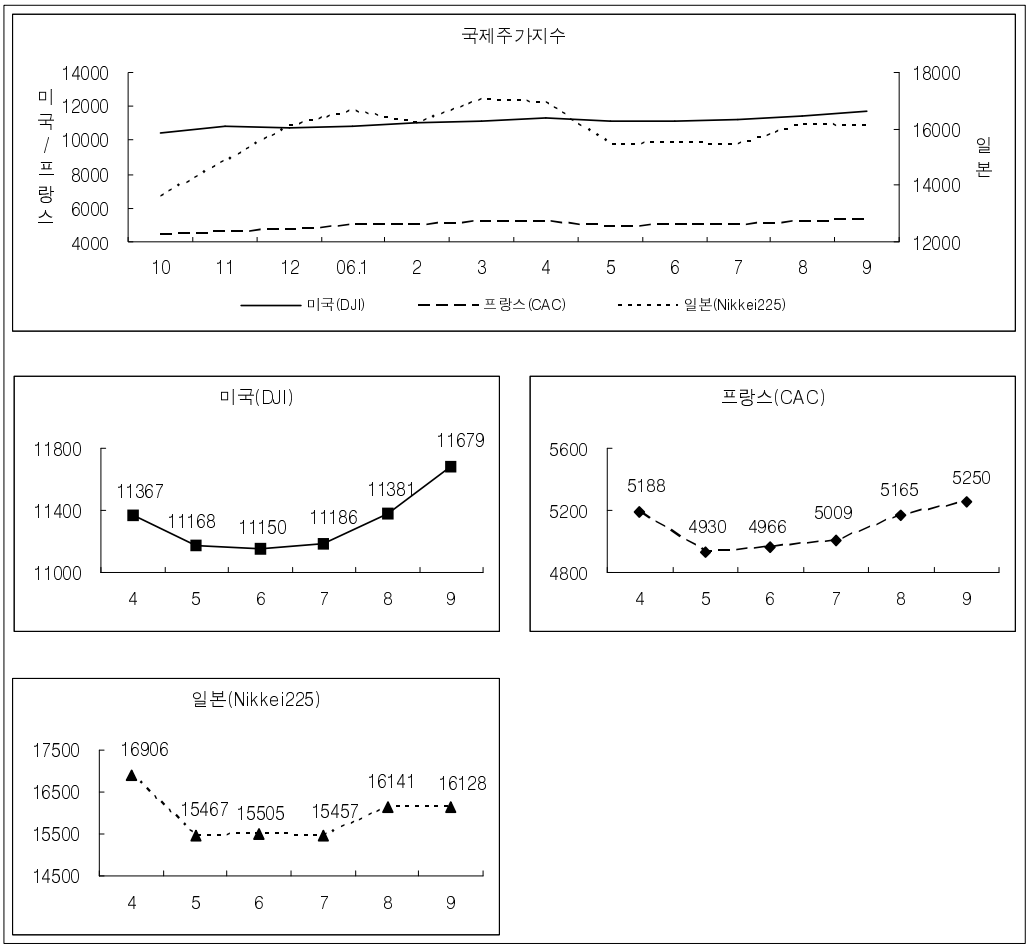
## □ 전망

- '06년 4/4분기 중에 세계 주요국가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장단기 국제금리는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임.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금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중앙은행이 저금리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제로금리정책은 해제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조치들도 국제금리를 상승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3-2 주요국 주가지수

**제3세계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자료 : http://finance.yahoo.com/

## □ 현황

- 9월중 미국의 DJI지수는 11679로 전월대비 2.61% 상승하였고, 일본의 Nikkei225지수는 16128로 전월대비 0.08% 하락하였으며, 프랑스의 CAC지수는 5250으로 전월대비 1.65% 상승하였음.

- '06년 3/4분기 중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의 경기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일본경제는 침체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세계 주요국의 주가지수는 보합세를 나타냈음.

## □ 전망

- '06년 4/4분기 중에 우리나라 북핵문제의 장기화나 중동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 소비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확대재정정책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임.

-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부진은 지속되겠지만,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주가는 상승세로 반전될 것임. 또한, 유럽국가들의 수출증가로 프랑스의 CAC지수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임. '06년 4/4분기 중에도 인도나 중국과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세계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signal)로 작용할 전망임.

#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Quarterly Economic Outlook for Chungbuk*


| | |
|---|---|
| 등 록 일 | 2000년 9월 18일 |
| 등록번호 | 충북바 01009 |
| 간 별 | 계 간 |
| 발 행 일 | 2006년 10월 |
| 발 행 인 | 이 수 희 |
| 펴 낸 곳 | 충북개발연구원 |
| | 360-765 |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
| | TEL. (043) 220-4370 FAX. (043) 252-0116 |
| 인 쇄 | 성화인쇄공사(TEL. 043-279-7070)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및 참여자 개인의 견해이며 충북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충북경제 동향과 전망

*Quarterly Economic Outlook for Chungbuk*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DEVELOPMENT INSTITUTE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TEL(043)220-4370~83 / FAX(043)252-0116